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례지원 요청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장영수 장수군수, 청와대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 만나 호소

장영수 장수군수는 인구 3만 미만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10일 청와대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장수군이 포함된 것을 설명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위한 특례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장 군수는 특히 이 자리에서 재정 지원도가 낮은 소멸 위기 지자체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은 지난 9월 이후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차 백신접종률도 82% 가까이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장수군수.

또한 재정지원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 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역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

장영수 군수는 "성공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은 장수군 발전을 위한 장 군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정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 소멸위험 지역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모두의 복지 보장... 맞춤형 복지 실현 주력”

황인홍 무주군수, 소통회의서 '함께하는 주민복지' 당부

황인홍 무주군수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소통회의를 주재하며 '함께하는 주민복지'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황 군수는 "복지는 삶의 질과 직결이 되는 만큼 모두의 복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전 군민이 복지의 수혜와 권리를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과 장애인, 여성·다문화, 청소년·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실현에 주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무주군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원 내 노후장비 교체와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등 의료 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6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치과를 기반으로 전문 진료 체계를 구축했다.

주민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6개 읍·면에 복지·간호전담인력(12명)을 배치해 6천여 건의 복지 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130병상 규모의 군립요양병원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토지 매입도 마무리한 상태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미용비를 지급(1인당 월 1만 원 쿠폰 지급/3년 간 총 9억 3천여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추진(57개 사업 추진/6,693명)하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독거노인 응급인원을 위한 신규 장비(활동 감지기, 게이트웨이, 화기센서, 응급 벨)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한국전쟁과 보릿고개의 실용, IMF 경제위기 등 어르신들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 한다"며 "고통을 감내한 부모님 세대들이 여생을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사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싶어나 가지"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반다누리직업장을 신축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주군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 콜택시(4대)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장애인들의 활동과 주거 편의 제

공을 위해 장애인화장을 건립하고 하은의 집(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관(548㎡)도 신축했다.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해 구직 2,031명 중 1,476명(취업률 73%/2018~2021)이 취업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성전문공간인 여성센터(증축 및 리모델링)를 개원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등 7개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청소년수련관 기능을 보강해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출산·보육·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등의 장려금 및 수당을 지원 중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11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농업인들의 화합과 긍지를 다졌다. 이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난타 및 풍기타 공연, 시낭송 등 식전공연과 기념식 농업인 한마당 진치순으로 진행됐다.(사)무주군4대본부가 주관했으며, 한국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무주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무주군연합회, 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청년농업인 4H회 등 농업관련 8개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이날 무주읍 김병준 씨를 비롯해 부남면 김일기 씨, 설천면 송재철 씨, 안성면 김윤준 씨와 정은선 씨, 무풍면 김경규 씨와 서선아 씨, 적상면 이복재 씨가 우수농업인 표창을 받았다. 이어 무주읍 김옥기 씨를 비롯해 무

장수군

장수군은 11일 농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누리 전당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3회 장수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위원장 장길환)가 주최하고, 장수군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채동욱)가 주관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수 군수와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함께한 농업인들을 축하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장수군 농업인 대상에는 과수부문 송재기씨(장수읍, 69세), 축산·임업 부문에 김종천씨(계남면, 68

진안군

진안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 관련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농업·농촌 국가 산업발전 유공자로 대통령 산업포장을 받은 이광재 씨 외에도 우수농업인 11명과 농업인단체 육성에 공로가 많은 공직자 및 단체 회원 5명이 표창장과 감

사패를 받았다.

김명갑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축소해 기념식만 치르게 됐는데 진안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이 자긍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농업인단체 회원 여러분이 진안농업을 잘 이끌어주시고, 진안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역 소식통

진안군·동물병원·단체 유기동물 보호사업 간담회

진안군은 내년도 유기동물 보호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동물병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민원 다발·비수의 성격 등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참여하려는 동물병원이 부족한 관내 상황에서 상호토론을 통한 유기동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안군 동물병원·동물단체·행정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경희(유기축병원) 원장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응급조치 등 기초적지 정도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희(동물단체(에니피스)) 대표는 향후 진안군 유기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과 입양·홍보를 통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고병원성 AI 긴급 비상방역체계 가동

진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했다.

군은 지난 8일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시료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9일 오전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먼저, 가금류 사육농장 관련 종사자와 출입 차량 등에 대해 9일 오전 11시부터 11월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 기간에는 가금류 관련 축산 차량 운행이 중지되고, 가금류 사육농장·차량·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해 잔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또한 농가 내 축사 그물망을 설치해 외부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다.

또한 AI 의심사례 발생농가와 역학조사 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농가가 있으면 신속하게 이동제한·예찰·소독·정밀검사를 실시해 시유입을 막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